제 6 회 칼 빈 학 술 세 미 나

개혁신학적 설교와 선교

일시: 2014. 5. 1. 목요일 오후2시-4시30분

장소: 고신대학교 비전관 4401 세미나실

1부: 예배 14:00-14:20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통384)

1.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 서보권 목사 (진주북부교회)

설교- 최정철 목사 (모든민족교회)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 고혜석 목사 (제일영도교회)

<포토타임 14:20-30>

2부: 세미나

사회: 이상규 개혁주의학술원장

강의1 14:30-15:10

● **개신교 개척자: 예정을 설교할 경우**
(The Protestant Frontier: Where Preaching Meets Predestination)
프랭크 제임스 3세 박사 (비블니칼신학교 총장)

강의2 15:10-15:50

●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에 나타난 청교도 설교**
박태현 박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3부: 질의응답 15:50-16:30 객석

개신교 개척자: 예정을 설교할 경우

작성자: 프랭크 제임스 3세(Frank A. James III)

발표일: 고신대학교 2014년 5월 1일

번역자: 황대우

서론

칼빈의 예정론이 설교와 복음과 선교에 대한 모든 관심을 약화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존 웨슬리(John Wesley)보다 더 신랄한 비판자는 없었다. 웨슬리는 만일 예정이 참이라면 "**설교는 모조리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웨슬리는 계속해서 예정론을 "**신성모독으로 가득한 교리**"라고 비웃고 천시한다. 그는 그것이 "**인간 영혼에 치명적**"이라고 말한다.[1] 나아가 그는 덧붙이기를, 예정이 참이라면 하나님을 "**악마보다도 더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2] 당대의 비판자들 가운데 스위스 프로이트파 심리학자, 오스카 피스터(Oskar Pfister)는 기록하기를, 이 교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악마적인 성향을 지닌 강박적이고 신경질적인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와 같은 판단은 무자비하고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칼빈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문 역사가로서 나는 이런 오해들을 문제 삼고자 한다. 불행하게도 저 개혁신앙의 창시자에 대한 대중적인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실제 칼빈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네바의 목회자

역사는 칼빈이 무엇보다도 목회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체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네바에서 지낸 세월 내내 그는 목회자로서 봉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빈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묻는다면 제네바에서 자신의 양떼를 목회하면서 보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그러한 목회자의 표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549년 4월, 칼빈은 이제 막 부인의 죽음을 맞이한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는지 상기한다. 늘 상 그는 그녀에게 시편을 읽어주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칼빈은 계속해서 목회자가 자신의 회중에 대해 져야할 책임을 상기시킨다. 칼빈은 다음

1) Roger Olsen, *Against Calvinism,* p.127.
2) Roger Olsen, *Against Calvinism,* p.128.

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즉,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와 같은 동정심과 슬픔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의 눈물을 나누어야 하고, 그와 같이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3]

칼빈에 대한 가장 집요한 다른 비판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너무 신학적으로 몰두하는 바람에 선교나 복음전도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칼빈을 포함하여 종교개혁자들을 선교학적 장애자들로 묘사한 유명한 개신교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의 말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에게서는 선교 활동은 고사하고 선교 개념조차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인 신학 견해들이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사상에까지도 영향을 주어 선교적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입니다."[4]

<u>예정에 대한 목회적 관점</u>

칼빈에 대한 이런 두 비평 모두의 중심에는 예정론이 있다. 예정론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이 복음전도와 선교를 약화시켰다는 것이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다.

우리는 우리 시대라는 한계 속에 있지만 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자주 무시되어온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기독교강요』 III-21에서 칼빈은 예정에 대해 이론적 추론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회중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유익한 점에서부터 시작한다.**[5]

그의 첫 문장은 모든 설교자가 직면하는 심원한 현실을 인정한다. 복음은 오랜 기간 동일한 회중에게 설교되는데 반해 "동일하게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6]

칼빈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면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생명을 제공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진실이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으로 인해 칼빈이 "**크고도 어려운 문제들**"이라 부르는 것에 도달하

---

3) J. Bonnet, *Letters of John Calvin*, (Banner of Truth, 1980), p.112.
4) Gustav Warneck, *Outline of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Time*, p.9.
5) Francois Wendel, *Calvin*, p.269.
6) Calvin, Sermon on Ephesians 1:3-4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If we ask why God takes pity on some and why he lets go of others and leaves them, there is no other answer but that it pleased him to do so.*" 참고. Wendel, *Calvin*, p.273. 후에 같은 곳에서 칼빈은 동일한 목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If the same sermon is preached, say, to a hundred people, twenty receive it with ready obedience of faith, while the rest hold it valueless, or laugh, or hiss, or loath it.*" (『기독교강요』 III.24.12/p.979)

는 것은 불가피하다.

칼빈이 예정론을 강요한 것은 그가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교리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한다.

"누군가 만일 안일한 확신으로 이 자리에 침입한다면,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요, 출구 없는 미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 속에 감추기를 원하신 것들을 절제력 없이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pp.922-923)

다른 한편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주는 목회적 유익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정말 달콤한 열매**"라 부른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선택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해, 그래야만 하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p.921)

칼빈의 비판자들이 칼빈을 주의 깊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데, 왜냐하면 칼빈은 예정이 설교를 약화시켰다는 표준적 비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들의 숫자에 속하는지, 누가 속하지 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평화의 참여자로 삼으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7]

마지막에, 목사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다음, 설교에 맡기라. 설교가 사람들을 믿음에로 인도하여 인내 가운데 지속적인 유익으로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도록!"

한 가지는 칼빈의 비판자들에게 학문적 답변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은 남아 있다: **칼빈이 어떤 복음화 내지는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가? 즉, 그가 말한 것을 실천했는가?**

우리가 만일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역사적 기록을 조사해야만 한다.

<u>피난민의 중심지 제네바</u>

제네바 도시는 오랫동안 칼빈과 유관한 도시로 여겨져 왔으나, 16세기에도 중요한 도시였다. 제네바는 본질적으로 독립된 도시국가 형태의 제국도시였다. 박해를 피해 도망친 개신교도들의 중요한 피난민 중심지이기도 했다. 개신교는 유럽에서 16세기 초에 이미 프랑스에

7) 『기독교강요』 I.23.14.

영향을 미쳤지만 16세기 중반에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권인 제네바로 도피했다. 그 결과 1550년대 제네바 인구는 그야말로 2배로 증가했다.[8)]

제네바에서 피난처를 찾은 불어사용 개신교 피난민들은 그들의 목회자로서 칼빈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성 삐에르(St. Pierre) 대성당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을 때 프랑스 피난민들의 마음은 애국심으로 불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복음을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칼빈을 찾아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칼빈은 교육받지 못한 선교사들을 가톨릭인 프랑스의 위험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이들 개개인을 자신에게 거두어들여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신학적으로 훈련했고, 그들의 설교 능력을 검증했으며, 그들의 도덕적 성품을 주의 깊게 면밀히 살폈다. 그들이 알맞게 훈련받고 검증된 후에야 칼빈과 제네바 교회치리회는 그들을 프랑스의 위험지역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프랑스에 복음 전하기

초기 기록물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555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1555년경 프랑스에는 개신교 지하교회가 5개 있었다. 1559년경에는 이 개신교 교회들의 숫자가 100개를 훨씬 넘어섰다. 최상의 학문적인 평가는 1562년경에는 프랑스에 세워진 교회가 2150개 이상 있었고 출석 교인이 약 3백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활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제네바 교회치리회에 의해 폭발된 것이다. 이 사실들을 볼 때, 칼빈이 선교에 무관심했다는 구스타프 바르넥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최상의 학문적 평가는 약 300명의 선교사들이 1555년부터 1565년까지 제네바로부터 파송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제네바 인구는 1만 5천 명 가량의 소도시였다. 내 친구 피터 윌콕스(Peter Wilcox)는 "**선교활동은 칼빈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몰두했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9)]

제네바 기록보관소들은 500년된 칼빈 서신 상당수를 보관하고 있다. 먼지에 쌓인 장서들 가운데는 제네바 선교사들이 쓴 편지들도 있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몇몇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베르제락(Bergerac)의 한 프랑승 교회는 칼빈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마귀가 벌써 대부분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사역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서 주일 설교에는 약

8) Robert Kingdon, *Geneva and the Coming Wars of Religion (Harvard, 1963),* pp. 79ff.
9) Peter Wilcox, "Restoration, Reformation and the Progress of the Kingdom of Christ: Evangelisation in the Thought and Practice of John Calvin (1555-1564)," D.Phil., (Oxford University, 1993), pp. 4-5.

4-5천명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몽뻴리에르(Montpelier)에서 온 다른 편지도 희소식을 전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크게 성장해왔고 지금도 날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주일에 모두 5-6천 명에게 세 개의 설교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다. 뚤루즈(Toulouse)에서 한 목사가 제네바 교회치리회로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 교회는 약 8-9천명에 달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네바가 프랑스 선교에 성공한 것은 프랑스 가톨릭까지도 인정했다. 예수회 사제 장 뻴띠에르(Jean Pellttier)는 1561년 뚤루즈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도시마다 제네바로부터 온 사역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은 주요 인사들과 대부분의 시장관들을 설득하여 이단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봅니다. ... 지금 온 나라가 이단으로 가득하므로, 만일 우리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금년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끝장날 것입니다.”[10]

비록 제네바가 당연히 프랑스에 개신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선교사들이 가야할 다른 지역들도 있었다. 선교사들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와 라인 강변의 자유제국도시들에도 보내어졌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최근 필립 휴즈(Philip Edgcumbe Hughes)는 이런 놀라운 성취를 알고 있는 소수의 현대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 칼빈의 제네바가 일종의 **“선교 학교[이며], ... 선교 관심과 활동의 역동적 중심지”**였다고 결론 내렸다.[11]

<u>해외 선교</u>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더 있다. 유럽에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이 해외 선교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칼빈은 대단한 흔적을 남겼다. 칼빈이 선교사들을 대서양을 넘어 서부 아메리카에 보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마치 탐험 이야기처럼 읽게 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교 에피소드가 있다. 점차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당시 프랑스 개신교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 장군(Admiral Gaspard de Coligny. 1519-1572)은 개신교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신세계에 프랑스 개신교 식민지를 건설할 큰 꿈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콜리니 장군

---

10) A. Lynn Martin, *The Jesuit Mind: The Mentality of an Elite in Early Modern France* (Ithaca,1988), p.90.

11) Philip Edgcumbe Hughes, ed.,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erdmans), 1966), p.25.

은 원정대를 보냈는데, 이 원정대가 결국 도착한 곳은 지금의 브라질 땅이었다. 브라질에 식민지를 세울 그의 계획에 따라, 콜리니 장군은 칼빈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착지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실로 우리는 제네바가 브라질에 보낸 두명의 선교사 이름을 알고 있는데, 삐에르 리쉬에르(Pierre Richier)와 귀욤 샤르띠에르(Guillaume Chartier)이 그들이다.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이 두 선교사는 마치 브리질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정착민들을 섬겼다.

프랑스 원정대는 1557년 3월 10일 리오 드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 도착했으나, 원정대 선장 니꼴라 듀랑 드 빌러갸뇽(Nicolas Durand de Villegagnon)이 개신교 목적을 배반했다. 그는 자신의 서부 아메리카 봉건영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개신교 정착민들이 동의하지 않자 그들 다수를 죽여 버렸다.

개신교 식민지 주민들과 제네바 선교사들은 브라질의 정글로 도망쳤고 거기서 놀랍게도 식인 부족과 더불어 피난처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개신교 식민지 주민들과 선교사들은 결국 프랑스로 돌아갈 길을 만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명(장 드 레리. Jean de Lery)이 자신의 브라질 탐험을 기술한 책을 썼다.[12] 그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지 기술했다. 비록 그들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끔찍한 고난 중에도 선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었다.[13]

<u>선교 동인들</u>

내가 답하려고 추구한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칼빈으로 하여금 놀라운 선교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소한 이 대답의 일부는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강해 설교자였으며 많은 현대 목회자들처럼 자신의 설교를 목회 기도로 마무리 했다. 이러한 마무리 목회 기도들은 칼빈의 깊은 확신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식적인 목회 기도들을 조금 살펴보면 왜 칼빈이 그처럼 선교에 마음을 쏟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설교한 후에 칼빈은 이런 마무리 목회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보물을 주시고 그와 같은 평가 불가능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말씀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전되도록, 그리고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자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 세상 곳곳에 편만하게 빛나야 한다."[14]

---

12) Jean De Lery, (trans. Janet Whatley), *History of a Voyage to the Land of Brazil* (University of California,1992).

13) Baez-Camargo, "Earliest Protestant Missionary Venture in Latin America," *Church History* 21 (1952), p.135.

14)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s to Timothy and Titus* (Banner of Truth,1983), p.185ff.

자신의 마무리 목회 기도에서 목회자 칼빈은 계속 이 동일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소망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이다.**

내가 인용한 증거를 가지고 나는 칼빈에 대한 구스타프 바르넥 교수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예정론은 결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관심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참으로 칼빈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몰두했던 일은 선교였다. **우리는 칼빈이 16세기의, 실로 기독교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선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흥미로운 증거를 외면할 수 없다.**

결론적 제언

만일 칼빈이 개혁신학의 안내자일 수 있다면, 개혁 장로교도들은 성경신학에 전념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의 양산과 선교적 세계관의 특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개혁파 사람들이 이러한 속성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개혁신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자신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 부를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만일 존 칼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나는 안다. 그는 그가 이미 자신의 『기독교강요』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기독교는] 혀가 아닌, 삶의 교리이다. 그리고 다른 학문들처럼 이해력과 기억력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계시되는 것인데, 즉 그것이 온 영혼을 사로잡고 그것의 좌소와 피난처를 마음의 가장 깊은 감정에서 발견할 때만이 비로소 계시되는 것이다."[15]

이것이 실제 칼빈의 모습이요, 개혁신학의 진정한 핵심을 반영한다.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 가능한 방방곡곡 어디서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변함없이 전념하는 것, 이것이 전통이다.

15) 『기독교강요』 III.6.4.